

새만금 신항만 건설 시작

1단계 첫 삽...2030년 완공 동북아 물류중심지 기대



골재채취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농경지.

“1년 농사 어찌하리오...”

임실 대정리 농경지 골재 채취 후 복구 없이 방치

10여 농가 “모내기 할 논 없어”...郡은 “나 몰라라”

“모내기 철인 이맘때가 1년 농사 성패를 좌우하는데 모심을 논이 없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마을 주민들이 임실군 골재 채취 후 복구 없이 방치된 농경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골재 채취 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10여 농가는 아예 모내기를 할 수 없어 올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또 모내기를 마친 주변 논이 경우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이지만 용수가 막혀 논에 물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일부 농민들은 자구책으로 인근 남원시 덕과면사무소에서 양수기를 빌려와 자신의 논까지 물을 대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 2010년 A 사업장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A 사업장은 지난 4월 30일까지 면적 1만8500㎡에서 골재채취를 한 후 복구를 미룬 채 철수한 상태다. 골재 채취장은 수심 6m 이상으로 깊는데다 안전 펜드도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오보영(72) 이장은 “농사를 못 짓는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군에서 안전조치나 우수로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안 해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실군 관계자는 “우선 골재 채취장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다각도로 주민 편의를 위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의 천혜의 요건, 광활한 배후물류 단지 등 최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새만금지구를 지원하게 될 신항만은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는 연운항과는 580km로 부산항의 906km와는 326km, 광양항의 767km와는 187km의 거리단축 효과가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2030년까지 1조4천934억원을 들여 14개 선석을 개발한다. 전체 공정이 완공되면 항만부지 488만㎡에 방파제 3.5km, 총 18개 선석을 갖춘 국제항으로 거듭나게 된다.

1단계로 2020년까지 1조548억원을 들여 방파제 3.1km와 부두 4개 선석, 항만부지(488만㎡) 등을 건설한다. 2단계로 2030년까지 1조4천934억원을 들여 14개 선석을 개발한다.

전체 공정이 완공되면 항만부지 488만㎡에 방파제 3.5km, 총 18개 선석을 갖춘 국제항으로 거듭나게 된다. <새만금, 동북아 경제중심지 부상> 2단계 사업에는 8만㎡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전용부두 건설된다.

신시도 마리나 항만, 고군산군도, 새만금 방조제, 전주 한옥마을과, 격포 채석강 등을 연계한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 전북도가 국제관광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신항만은 우리나라 최초로 항만 간 해상을 교량으로 연결하는 인공섬 식 항만으로 건설되고 수로를 통해 해수유통이 되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된다.

신항만 착공으로 항만 배후 인프라인 새만금~전주~(무주)~포항 간 고속도로와 동서 횡단철도(새만금~전주~김천) 조기 착공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완주 지사는 환영사에서 “군산항 개항 이후 113년 만에 새로운 신항이 건설되는 날로 뜻깊고 역사적인 날”이라며 “새만금 신항이 세계적인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후 물류복합 산업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박승식기자 nogusu@



지난해 4월 탐사로 습지로 지정된 고창 ‘운곡습지’.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천연기념물·희귀식물 등 총 549종의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고창 갯벌·운곡 습지 세계유산으로

郡, 유네스코 등록 추진

고창군이 ‘고창 갯벌’과 ‘운곡 습지’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15일 한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위원회(MAB)에 신청서를 제출해 전문가 등으로부터 검토 및 자료를 받아 9월에 최종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록되면 전북대, 환경부, 한국생물권보전지역 위원회 등과 협력해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계적으로 으뜸이 되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가꿀 예정이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핵심·완충·전이지역으로 구분된다. 핵심지역은 동·식물의 종 다양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곳으로 고창에서는 고창갯

벌, 운곡습지, 고인돌 유적지, 선운산 도립공원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고, 전이지역은 사람이 생활하며 농업활동, 주거지 및 다양한 기타 용도로 활용되는 지역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되면 고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브랜드가 강화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단신

도내 해수욕장 내달초까지 전면 개장

전북도는 지난 16일 부안 변산·모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9개 해수욕장이 다음달 초순까지 모두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과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 해수욕장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작업에 한창이다. 부안 변산

해수욕장은 백사장 환경개선을 위해 모래 7천㎡를 채우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북도 김강근 담당은 “해수욕장 조기개장과 새만금 방조제를 연계한 피서객 유입 등 이용객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남원시 청사내 ‘모유 수유실’ 개소

남원시는 최근 여성단체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유 수유실’ 개소식을 가졌다.

시는 청사내 여직원과 방문객 모두의 활용 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로비에 수유 의자와 정수기, 아기 침대 등을 갖춘 수유실을 설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시 보건소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청에 150여명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수유실은 여직원과 유아를 동반한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시 내달부터 버스 감축 운행

김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를 감축 운행하는 ‘탄력 배차제’를 시행한다.

조정 대상노선은 하루 운행대수가 4대 이상인 ▲김제~만경~거전리 ▲김제~부량~평교 ▲김제~금구~원평~금천 ▲김제~죽산~신광리 ▲김제~남산~대

동리 등 5개 노선으로 운행대수를 각각 1대씩 감차 운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노선별로 하루 12~18회 감축 운행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연간 1억 2000만원 이상의 운송원가 비용 절감과 함께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상춘곡 문학제 백일장 장원에 황재운씨

최근 열린 ‘제6회 상춘곡 문학제 백일장’ 일반부 부문에서 황재운(경북 경주)씨가 ‘어머니의 상자’로 장원의 영예를 안아 전북도지사상(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학생부 부문에서는 박지인(광주 상일여고 3년)양이 ‘오막살이의 추억’으로 장원을 차지해 정음

시장을 받았다. 장원과 차상 작품은 오는 10월 발간 예정인 ‘내장문학 30호’에 소개될 예정이다. ‘상춘곡 문학제’는 우리나라 최초 가사문학인 상춘곡의 발상지인 정음의 위상을 되찾는 한편 문학인재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ss@

부안군, 농가 가축질병 예방 강화

부안군은 올 여름 고온다습한 날씨로 발생하기 쉬운 가축질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안군은 ‘2012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공수의사, 가축방역 및 소독에 대한 농가 지도·홍보 및 현장점검 등 가축질병 예방 활동을 한층 강

화하기로 했다. 또 축산위생 연구소와 연계해 가축질병 신고센터(063-580-4252)를 운영키로 했다.

부안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축산농가 사육관리와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태조 어진’ 국보 되다



본적 성격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어진의 제작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경기전의(慶基殿儀)’, ‘어진이모도감의례(御眞移模都監儀軌)’ 등의 기록도 남아있다. 또 여타의 어진과는 달리 태조 어진 장식품인 유수(流蘇), 풍대(風帶) 등이 온전하게 갖춰져 있어 국보승격에 의미를 더했다.

전주시는 국보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달 말께 태조 어진 특별전시와 학술 심포지엄을 준비 중이다.

9월께에는 대규모의 태조 어진 봉안행렬을 재현하고 고유제 등 기념행사 등 치를 예정이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태조 어진은 전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브랜드로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태조 어진(보물 제931호)을 국보로 지정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태조 어진이 현존 유일하게 전해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며 1872년에 제작됐지만, 제작시기와 상관없이 조선 초기 어진의 원

숯불구이전문점 나는 **한돈**이다 KOREA PORK

대박나는 체인사업!!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하세요

서두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 사장님의 현명한 선택만이 대박사업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의 소자본으로 대박신화를 이룰수 있는 절호의 기회!!

- 가맹비, 로열티 일체없음
- 인테리어 비용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최소금액 최소비용으로

딱! 2분이면 OK!! 타지않고 완벽하게 빠른시간안에 구워지는 기발한 아이디어 숯불구이 전문점 기쁨이 많은 오리와 삼겹살을 타지 않게 숯불에 구워내는 초 대박 숯불구이 아이템!! 기쁨은 좌와~ 빠지고 육즙은 그대로 살아있어 부드럽고 고소한 숯불구이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돈은? 품질좋은 국내산 돼지만 엄선하여 사용하고 100% 진짜갈비와 생삼겹만 취급하는 국내산전문점 입니다.

파격지원 간판교체비용 일체를 본사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광주지역내 10개 점포에 한정

취급메뉴

- 돼지갈비숯불구이(국내산) 250g
- 생삼겹살숯불구이(국내산) 200g
- 갈매기살숯불구이(국내산) 200g
- 생 오 리숯불구이(국내산) 200g

정식특선

갈비정식 5,000원 냐면 4,000원

정량판매(1인분) 7,000원
포장판매 take out 5,500원

체인점 문의 직통
062-265-8900 011-803-2612

오치본점 5개 오픈 성업중!
062-264-5343
일곡점 OPEN
062-573-5204
고대점 OPEN
062-526-6617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